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인사 윤웅렬 선정비

광주공원에 100년간 버젓이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

안일한 역사 인식 지적

광주공원에 친일파로 분류된 인사의 기념비가 100년 넘게 세워져 있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 광주시 민단체 4곳은 최근 역사교육장인 광주공원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윤웅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점을 들어 안일한 역사 인식을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공원의 경우 1943년 제1호 공원으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광주지역 공원으로 충혼탑, 4·19 의거 영령 추모비, 5·18 민중항쟁 사적비 등이 들어선 교육장임에도, 친일인사로 분류되는 윤웅렬 선정비가 다른 비석들과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광주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일제시대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관리 당국인 광주시와 남구가 선정비 존재 여부조차 몰랐다는 점에서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한 비

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정비는 지난 1896년 전남 관찰사를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며 광주향교 옆에 세워졌다가 지난 1965년 광주공원으로 옮겨졌다.

윤웅렬은 한말 형조판서, 대한제국 군부대신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10년 한일 합병 후 남작 작위를 받고 1911년 사망, 이후 작위는 그대로 장남인 윤치호에게 승계됐다.

윤웅렬은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 친일인사로 분류된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윤웅렬의 조카 윤치소의 아들이다.

이치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친일 행적을 기록한 단죄비나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석 자체가 역사적 유물이라 함부로 철거하기는 어렵다”면서 “역사적인 현상으로 삼기위해 친일파 행적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100년 넘게 남아있는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 윤웅렬은 1910년 한일합병 때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아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정권 비판 신문 봤다고

국보법 위반 실형 선고

1982년 ‘햇볕회’ 사건

33년만에 재심 주목

88올림픽 유치가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권을 ‘파소’ 정권이라고 비판한 신문은 지금도 지적 표현물에 해당할까.

이른바 ‘햇볕회’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당사자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지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 등 4명은 30~40대이던 지난 1982년, ‘햇볕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졌해 신문이나 서적 등 지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지적표현물로 규정된 신문은 지난 1909년 2월 미국 교민단체인 ‘국민회’가 창간한 신한민보(新韓民報)로, 도산 안창호가 창간한 공민신보의 후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이들이 2차례 복사해 나눠줬다는 신한민보에는 ▲분화(分化)가 두려워서 - 노동자·농민을 수탈하는 현 정권의 경제 상황은 심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문제점 많은 서울올림픽 - 88올림픽 유치는 남북 분단·대립을 양극화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을 88올림픽 이후에도 연장하려는 음모라며 비판한 기사 ▲참으로 잔인한 고문 중단하라 - 전두환 파소(fascio) 정권은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는 등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이 실려있었다.

검찰은 이같은 신문 기사와 내용을 공

소 사실로 기재했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A씨 등은 “미국 한인사회에서 공공연히 일회지는 신문으로, 88올림픽을 개최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한 기사 내용 등을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며 지적표현물로 지목하고 ‘북한 동조’, ‘북괴 활동’으로 내몰았다”면서 3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수사 당국이 당시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과 관련, 영국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불온서적이라며 공소를 제기했던 당시 수사당국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이들은 1982년 이뤄진 1심 재판에서 3명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사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지난 2월 청구가 받아들여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송기석) 심리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아밤에 영장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강제연행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얼룩진 조사는 밤낮 없이 계속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과 당시 경찰관들은 반성하기는커녕 과거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공항버스 기사가 1km 보복운전

“진로 방해했다” 쫓아가

시내버스 막아서고 행패

광주서부경찰은 20일 시내버스를 뒤쫓아가 앞을 막아서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공항버스 운전기사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삼거리에서 또

다른 이모(42)씨가 몰던 시내버스를 1km가량 쫓아가 10여초 간 차량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버스 운전기사 이씨는 1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넘어와 2차로를 달리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위협스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해질 19:44
달출 10:11 달짐 22:35

시원한 소나기
동부 남해안에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온 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소나기 24/28 보성 소나기 22/28
목포 흐림 22/27 순천 소나기 23/29
여수 소나기 23/26 영광 흐림 23/28
나주 소나기 23/29 진도 흐림 22/28
완도 흐림 22/28 전주 비 23/29
구례 소나기 22/30 군산 흐림 23/28
강진 흐림 22/28 남원 비 23/28
해남 흐림 23/28 흑산도 흐림 21/26
장성 소나기 23/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남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남~남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22	10:36
	17:31	22:39
여수	11:59	05:50
	00:00	18:00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	☁	☁	☀	☀	☀	☀
23/27	23/27	23/30	24/31	24/32	24/32	24/32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운동: 30
- 빨래: 30

광주~양양 항공편 1달째 ‘스톱’

항공사측 “엔진분해 수리중”

시민들 “적자 누적때문 이냐”

광주~양양을 오가는 유일한 항공편이 4개월째 멈춰서었다.

항공사측은 ‘엔진 분해 수리중’이라는 공식 중단 사유를 밝혔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적자 누적을 감당하기 힘들어 운항을 멈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항공편을 활용, 강원도 휴가를 계획했던 시민들의 경우 일정을 조정해야 할 듯하다. 광주공항에 따르면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지난 3월 1일부터 4개월 넘도록 광주~양양간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사측은 지난 2012년부터 18인승

소형 항공기를 띄워 광주~양양간 주 3회 운항해왔다. 해당 노선 이용객도 ▲2012년 1806명(탑승률 47.3%) ▲2013년 2709명(“ 51.8%) ▲2014년 3234명(“ 58.1%)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6000시간 비행 초과 시 엔진 점검’ 규정에 따라 운항을 중단, ‘엔진 분해 수리’에 들어갔지만 4개월째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항공사는 항공사측이 엔진 분해수리를 위한 비용(18억여원)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는 해당 노선에 대해 ▲2012년 5600만원 ▲2013년 8800만원 ▲2014년 8900만원 ▲2015년 150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을 지원해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검찰,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에 구조금 지급

2012년 나주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당한 초등학생이 법의 도움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피해자 A양에게 중상해구조금 998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 때문에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검찰 범죄피해자구조금의회는 A양에게 구조금을 지원하고 범행을 저지른 고모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